

배포일시	2020. 12. 8.(화) 16:00 (총 1매)	보도시점	즉 시
담당부서	항공기상청 정보기술과	담당자	과 장 이 명 희
		전화번호	032-222-3072

**인천국제공항 기상관측장비 첨단화 추진  
낙뢰, 어는비 탐지를 통해 야외 근로자 및 시설, 항공기 등 피해 예방에 기여**

- 항공기상청(청장 손승희)은 인천국제공항 제3활주로 공항기상관측장비를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며, 12월에 완료할 예정이다.
  - 해당 장비는 2008년에 도입하여 운영 중으로 노후화가 상당히 진행되어, 자체 예산확보 후 올해 5월 교체사업에 착수하였다.

**☞ 공항기상관측장비란?**

▶ 항공기 이·착륙 등 운항에 필수적으로 활용되는 활주로 기상상태(풍향·풍속, 시정(활주로 가시거리), 운고·운량, 온·습도 등)를 실시간으로 관측하는 장비

- 이번 사업을 통해 공항 인근 낙뢰와 어는비를 탐지하는 센서를 신규로 확충한다.
  - ※ 낙뢰는 공항시설 피해 및 야외 근로자의 감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며, 어는비(Freezing rain)는 항공기 동체에 달라붙어 운항에 지장을 줄 수 있다.
  - 이로써 공항 주변의 위험기상을 조기 탐지하여 항공기 안전과 공항 내 근로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.
- 또한, 내년에는 인천국제공항 제4활주로 운영개시에 맞추어 관측서비스를 차질없이 지원하고, 2010년에 도입된 제1,2활주로 공항기상관측장비를 교체할 예정이다.
- 항공기상청은 항공기의 안전하고 경제적인 운항을 위하여 기상관측장비 첨단화와 중단없는 서비스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.